

연일 치솟는 기름값을 견디다 못한 전남도내 여객선과 농어촌 버스가 운행중단사태를 맞고있다. 항공사들도 무안공항의 항공기편을 크게 줄이는 등 '고유가 쓰나미'가 육·해·공 운송업에 몰아치고 있다.

5개 시·군 농어촌 버스 감축 거문도~백도 유람선 시동 꺼 무안공항 항공기 편수도 급감

陸·海·空 '고유가 쓰나미'

피서철 성수기 이용객들 불편 가중

예년 같으면 운항편을 늘렸을 피서철이 시작됐는데도 거문도~백도 구간을 운항하는 유람선 '모비딕호'(300t급·청해진해운 소속)는 지난 1일부터 5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갔다. 또 여수~거문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오가고호'(300t·청해진해운)와 '거문도사랑호'(300t·오션호프)는 하루 1회씩 2회 운항하던 것을 이달 초부터 교대로 하루 1회씩만 운항하고 있다. 여수~소리도를 하루 3번 왕복하던 철부선 '금고고속훼리호'(250t·합리해운)도 2회로 운항 횟수를 줄였다. 또 목포와 흥도를 오가는 350t급 여객선 7척도 교대로 하루 4회 운항하던 것을 3회로 감축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모비딕호가 거문도~백도 구간을 1회 왕복할 때 드는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무려 40%이상 증가해 300만원씩 들고있다"며 "지난 1월부터 최

근까지 누적적자가 7억여원에 이르러고 있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농어촌 버스도 운행 횟수를 줄여 농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는 57업체가 1천223대의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최근 구례 등 5개 지역의 버스업체가 감축운행에 들어갔다. 구례군은 구례읍에서 화암사까지 하루 400회 운행하던 버스를 지난 14일부터는 하루 380회로 20회(5%) 감축했으며, 완도군은 완도~남창 동서부까지 하루 246회 운행하던 것을 지난 12일부터 하루 232회로 14회(5.7%) 줄였다.

담양군은 지난 1일부터 322번 농어촌 버스를 410회에서 405회로 하루 5회(1.2%) 줄였으며, 강진군은 지난달 10일부터 농어촌 버스 전체운행 횟수를 189회에서 170회로 19회(10%) 감축했다. 고흥군

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고흥~녹동, 고흥~별교를 연결하는 농어촌 버스를 하루 734회에서 689회로 45회(6%) 줄여 운항할 예정이다. 또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광양 등 5개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신안은 버스공영제 시행으로 제외)에서도 농어촌 버스 감축 운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 항공편도 줄었다. 지난 5월말까지 매주 19편이 취항하던 무안공항은 최근 대한항공의 상하이 노선과 아시아나 항공의 베이징 노선을 비롯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의 심양, 장사, 상하이 노선 등 47% 감소한 주 10편만 취항하고 있다. 취항중인 항공편도 탑승률이 30~40%에 그치고 유류할증료마저 크게 오르면서 기존 노선의 감축이나 운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인현주기자 redplane@



광주서 만나는 '루벤스·바로크 걸작'

광주 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과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이 공동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특별후원하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16일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루벤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삼미신'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9일까지 계속된다. > 관련기사 15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李 대통령 "對北·對日 강경 대응"

금강산 관광, 사인 규명 없인 재개 안해

독도 도발, 전략·장기적 안목 갖고 대처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북, 대일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조치가 이뤄지

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해 왔다"며 "금강산 관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비무장 관공에서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

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남북 합동 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규범이나 상식에 비해 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한국의 국론 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본이 장기적, 전략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하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우라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강화, 중국 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씨 피격' 정확한 거리 추정 불가

정부 합동조사단

정부는 16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과 관련, 현장 조사가이 정확한 사거리 추정이 불가능하며 두 발의 총격간 선후 관계도 파악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6면>

정부 합동조사단(황부기 단장)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고(故) 박원자씨 정밀 부검 결과로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복측 초병이 '2m 이상 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세한 거리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검 집도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중석 법의학 부장은 "부검 결과 등과 영덩이 등 2곳에서 총상이 발견됐다"며 "사거리는 내부 장기 손상 등을 종합 할 때 원사(連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사인에 언급, "관통한 총

창들에 의해 각 장기가 생명 유지에 부적합한 손상을 받고 사망했다"며 "간과 폐 손상에 많은 출혈을 일으키며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日, 고교 해설서까지 독도 영유권 명기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0년만에 이뤄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관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새로 작성한데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작업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최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안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만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해설서를 통해 비슷한 표현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해설서와는 달리 정식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항천수 2008년 8월 4일~6일

장곡동 2호 203호 81㎡ 평 680, 112㎡ 평 1960

3년부족 7월 15일 개관 (사립지구내)

임대문의 전번 주책 0261-6801 도시재생사업팀 0300-0660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p>조이 여행사</p> <p>일본 - 패키지</p> <p>4월 4일</p> <p>945,000</p> <p>5월 5일</p> <p>995,000</p> <p>무인 + 여행</p> <p>4월 4일</p> <p>519,000</p> <p>4월 4일</p> <p>719,000</p> <p>5월 5일</p> <p>739,000</p> <p>4월 4일</p> <p>769,000</p> <p>4월 4일</p> <p>439,000</p>	<p>국립 러시아 - 북부 로트릭 8월</p> <p>1,170,000</p> <p>중국 - 북부 로트릭</p> <p>4월 4일</p> <p>829,000</p> <p>4월 4일</p> <p>829,000</p> <p>남양이 - 북부 로트릭</p> <p>5월 5일</p> <p>599,000</p> <p>5월 5일</p> <p>599,000</p> <p>4월 4일</p> <p>599,000</p> <p>5월 5일</p> <p>749,000</p> <p>5월 5일</p> <p>999,000</p> <p>북양이 - 북부 로트릭</p> <p>4월 4일</p> <p>270,000</p>	<p>일본 배낭 여행</p> <p>국내 관광 - 북부 로트릭</p> <p>4월 4일</p> <p>170,000</p> <p>4월 4일</p> <p>140,000</p> <p>4월 4일</p> <p>293,000</p> <p>4월 4일</p> <p>85,000</p> <p>4월 4일</p> <p>99,000</p> <p>4월 4일</p> <p>249,000</p> <p>4월 4일</p> <p>233-5900</p>
---	---	--